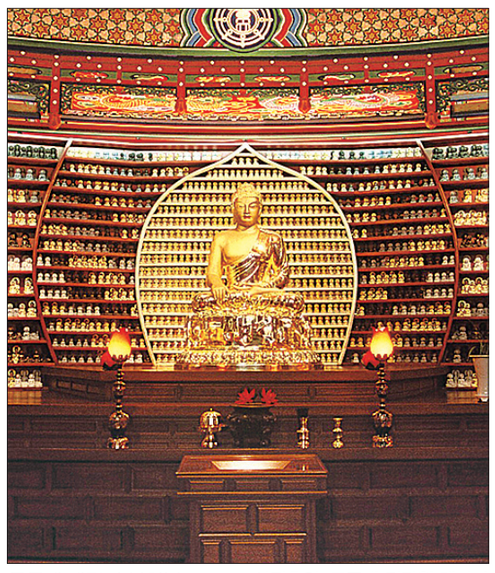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④ 대각전 1 – 〈화엄경〉 불화엄의 의미

대각, 만불이 장엄하다
〈大覺〉

동국대학교 혜화문에서 약간 밑으로 돌아가면 학교 초입건물인 이해랑 예술극장이 나온다. 이 이해랑 예술극장이 있는 건물이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관이고, 이 기념관의 아래에는 이해랑 예술극장, 위로는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법당인 대각전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건물을 90주년 기념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산책 중에 들릴 곳이 이 기념관에 위치한 대각전이다. 대각전은 원형법당으로 사각형의 구조를 탈피한 것만으로도 새로운 느낌을 주는 법당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주존으로 계시며 다른 좌우보처가 없이 작은 부처님 만 분이 봉안된 만불봉안의 법당이기도 하다. 그런데 원래 보살, 부처님은 너무나 희유한 존재이시기에 이 삼천대천세계에 단 한 분만이 존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많은 부처님은 누구실까?



동국대 대각전 부처님. 사진출처=동국대 정각원 갤러리

부처님은 중생·성문·연각 달리 대각 가져
대각 얻어 장엄 장면 담은 경전이 '화엄경'
'불화엄'이여야 '부처님 장엄' 뜻 명확해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누는 사상적 기준 중에 일세계-일불설과 다세계-다불설이 있다. 소승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보살은 너무나 위대하고 희유한 존재이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고 오로지 한 분만이 계신다는 의미에서 일세계-일불설을 주장한다고 한다. 반대로 대승에서는 지금도 현재설법 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등의 타방불이 계시기에 다세계-다불설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복잡하게 불교의 다양한 우주론을 펼칠 이유는 없지만, 사실 일세계-일불설도 여러 세계에 각각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세계-다불설과 다르다고 할 건 없다. 우리가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임종시에 염불행자를 거두시러 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때 열두 분의 부처님과 스물다섯 분의 보살께서 함께 오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세계에 아미타불과 열두 부처님, 도합 열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걸까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다. 다만 아미타 부처님의 이명(異名)에 열두 개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교주로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극락세계의 교주로 계신 아미타 부처님, 사실 대승의 세계관에서도 일세계-일불설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 분의 주존 부처님과 만 분의 부처님이 한 세계에 자리하신 이 대각전은 무엇일까? 이는 대각(大覺)이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각전은 말 그대로 대각을 모신 곳으로, 대각은 곧 부처님을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깨달음이 있다. 외도의 전도된 깨달음도 있고, 성문의 사성제를 깨달음, 연각의 연기를 깨달음도 있다. 다만 이런 여러 깨달음 중 가장 크며, 가장 위대하여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 이를 대각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중생, 성문, 연각과 다른 것은 이 대각을 가지셨기 때문임으로 곧 대각을 부처님의 이명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 대각을 얻은 순간, 바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빛나는 샛별을 보시고 삼명이 밝아지셨을 때를 말하는 경전이 〈대방광불화엄경〉, 줄여서 〈화엄경〉이다. 우리에게는 〈화엄경〉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한 '화엄경약찬게'로도 잘 알려져있고, 의상 스님의 대표작인 '법성게' 또한 〈화엄경〉의 대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런데 익숙한 '약찬게'도 '법성게'도 〈화엄경〉의 내용만을 말하지 경전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데, 원래 동아시아불교에서 경전제목은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화엄경〉의 제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바로 '불화엄(佛華嚴, Buddhāvataṃsaka)'이다.

우리는 간단하게 〈대방광불화엄경〉을 화엄이라고 줄이지만, 사실 절대로 제외해서는 안되는 말이 바로 '불'이다. 화엄이라고 하면 '장식하다'라는 말밖에 안된다. 강아지도 옷을 입히면 장엄이고, 나무가 얼지 말라고 짚단을 메어도 장엄이다. 그냥 장엄이라는 동사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에 반드시 붓다를 장엄한 불화엄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화엄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장엄해야 한다고 할까? 바로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장엄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불화엄이고 연화장세계이다. 실지로 경전 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자 다른 세계의 신들과 보살들, 그리고 부처님들이 이를 장엄하러 모이시는 이 장엄의 장면을 말하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부처님이라는 너무 위대하여 그 위가 없는 분, 그렇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는 그 분을 우리는 대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각을 장엄하는 것은 다시 복수의 부처님이라는 이 이중적 상황이 나에게는 대각전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이 굳어진 이미지는 다시 나에게 〈묘법연화경〉에서 말해지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유불여불, 唯佛與佛)'의 경지로 이어지며 일승, 불승의 개념들이 대각전의 부처님을 장엄하게 된다.

물론 내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논사와 조사님들이 자상하게 풀어 논증하셨고 그 나름으로 의단을 풀어나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법계, 법신이든, 유심이든, 무애(無碍)이든 해결을 위한 여러 실마리도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계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에 회의감이 느껴진다.

첫 번째로 경전 상에서 제시되지도 않은 추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경전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다. 〈화엄경〉이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는 일체유심조의 경전이라 말할 때, 우리는 이 일체유심조의 사구게 앞뒤의 문맥을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까? 이 일체유심조가 유심의 법계, 무애의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전의 문맥상 가능한 일일까? 아니 사실 그 진짜 경전 상의 내용이 아니라 토르소로 뚝 짤린 이 게송에서 새로운 내용을 일구어낸 건 아닐까? 우리는 〈화엄경〉을 정말 자신의 손으로 읽고 있는걸까?

두 번째로 회의감은 이해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다. 그런데 만불의 부처님께서 자리하신 대각전에서 나도 덩달아 말이 많아져 버려 허락된 지면이 다해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이 만약 어떤 목적이 있어 도착지가 결정되었다면 여기서 말을 멈추어야겠지만 산책자는 머물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머물 특권이 있음으로 다음 호에서 대각전의 얘기를 더 이어가 보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모든 부처와 법을 수용한 '삼계교' 아미타부처님 믿고 따르는 '정토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⑧ 삼계교와 정토교

지난 강의에서는 삼계교의 철저한 수행 규칙과 벌칙에 대해 살폈습니다. 삼계교가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고 운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삼계교의 '삼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야 합니다. 신행(信行, 540~594)이 창시한 삼계교에서는, 모든 불교의 시대를 셋으로 나눠 '삼계(三階, 시처인·時處人)이라 하고, 그 셋을 각각 일승·삼승·보귀보법(普歸普法)의 불법(佛法)이라고 합니다.

즉, 시(時)라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 처음 500년은 '제 일계(第一階)', 다음의 500년은 '제 이계(第二階)', 1000년내지 1500년 이후는 '제 삼계(第三階)'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장소(처, 處)는, 정토 연화장세계 및 오탁 제악(五濁諸惡)의 예토(穢土)입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사람(人)은 '제일계'는, 최상이근(利根)의 일승 근기로서, 지계(持戒)나 파계 모두 늘 정견은 지니며, '제이계', 이근정견(利根正見) 성취의 삼승(三乘)으로서, 계(戒)와 견(見)을 함께 파하지 않은 것과 또는 계를 파하고 견을 파하지 않은 것의 구별은 있으나 어느 쪽이나 안목이 있는 무리로서, 별진별정(別眞別正)의 불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삼계' 즉 말법 때의 일체 공견·유견·파계중생인 우리들, 즉 예토에 의한 계견구파전도(戒見俱破轉倒)의 중생인 우리들은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고, 오로지 보진보정의 생맹불법(生盲佛法)만이 타당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삼계교는 제3계인의 근기는 공견(空見, 공에 사로잡힌 잘못된 생각)·유견(有見, 모든 것이 있다고 주장함)·사견(邪見, 잘못된 견해 및 사상) 중생으로 보기 때문에 아견(我見)과 여래장·불성을 부정하는 견해에 사로잡혀, 정확한 견해를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의 별다른 정해진 불법(別眞別法)으로는 맞지를 않고, 폭 넓은 보진보정(普眞普正)의 불법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토교에서는 오직 아미타불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고 하여, 별다로 정해진 것(別眞別正)의 주장을 하는데 반하여, 삼계교에서는 일체의 삼세제불, 25불, 35불 등등의 모든 부처에게 귀의하는 것이, '보불보법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제1계, 제2계의 불법만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들을 자기와 비교하여 그 가치에 의하여, 저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단계(段階)로서 자기의 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법이 도래한 현재에 있어서는, 교(教)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여 오히려 교법으로서는 저열(低劣)한 위치에 있는 제3계의 불법이 당시의 민중들에게 실효성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법의 평가를 그 내용에 두지 않고, 시대적 기능에 비추어 판정하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삼계교의 신행 선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당시 사회적 인식을 접목해 민중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계교의 교리가 모든 면에서 찬양받고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토교와의 교리 상 대립이 이뤄졌습니다. 정토교와의 유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자 모두 말법(末法) 불교에서 탄생한 점 ② 탁악(濁惡) 세계의 득도를 난사(難事)라고 한 점 ③ 심심(甚深)한 죄악의 지각에 입각한 점 ④ 사악(邪惡)의 하기(下機)는 특수한 불법(정토교는 상법, 삼계교는 하법)을 필수로 하는 것 ⑤ 정토의 인과를 설명하여 왕생정토를 권장한 것 ⑥ 성인이 가신지가 오래됨과 이치는 깊고 해독함은 엷고(去聖遙遠理深解微), 별다른 행동과 별다른 견해(別行 異見)를 사폐(捨閉)하여 대근기행(對根機行)을 주안으로 한 것

반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입니다.

①삼계교는 보불보법(모든 부처와 모든 법을 수용)을, 정토교는 아미타 한 부처를 믿음. ②사기(邪機)를 이유로 전념(專念)을 부정, 정토는 악기(惡機)를 이유로 보념(普念)을 거부 ③차토입성(此土入聖) 직도성불(直導成佛)을 허용, 정토는 피토입성(彼土入聖;서방의 극락세계)을 흔쾌히 여김. ④구심(求心)에 기울어 지관(只管), 원(圓)의 중심을 두려워하고, 정토는 원심을 좇아 전심으로 원의 주위를 방황하는 것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